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민주개혁국민  
 사이버연합에서  
 상임집행위원  
 으로 활동하고  
 있는 효림님의  
 명함을 받아보면  
 한눈에 일반 명  
 함과 다르다고  
 느낄 수 있다.  
 효림님의 명함  
 에는 주소도, 전  
 화번호도 없다.  
 '효림'이라는 법  
 명에다 홈페이지  
 주소와 친리안  
 하이텔 중에 개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드자**  
 설된 E메일 주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명함에 적힌 홈페이지 주소가 민주개혁국민사이버  
 연합의 것이라는 것도 인터넷에 접속해서 확인해  
 봐야만 알 수 있다. 이렇듯 E메일이 확산되면서  
 명함의 디자인과 내용도 바뀌기 시작했다.  
 E메일이 보급되면서 E메일 전문 매거진들도 발  
 행되고 있다. 자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매거진도  
 있지만 대다수는 E메일 상으로만 발행된다. 부처  
 님 말씀을 매일 매일 들을 수 있는 매거진도 있  
 다. 다양한 생활정보는 물론 전문 의학 정보, 자동  
 차 정보, 컴퓨터 정보, 육아 정보 등 다채로운 주  
 제의 매거진이 수천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다.  
 E메일 주소를  
 가지게 됨으로써  
 불자들에게 이로  
 위치는 것은 어  
 뎀 것일까? 불교  
 관련 서적은 대형서점이나 불교전문 서점이 아니  
 고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불편을 E메  
 일로 해소시켜 준다. 불교 신간목록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교서적들의 물  
 건 목록까지도 E메일로 서비스받을 수 있다. 또  
 불교관련 논문이나 전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헌  
 들을 원자본보다 빠르게 E메일로 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E메일 주소는 어디에서 만드는 것일까.  
 우선 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에 가입하는 방  
 법이 있고 신비로 넷츠고 등 인터넷 서비스에 가  
 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 외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면 무료 E메일 서비스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대표적인 곳이 다음넷  
 (http://www.daum.net)이다. 다음넷은 우리나라  
 최초의 무료 E메일 사이트인 한메일넷을 전신으로  
 하여 지금은 포털사이트로 발돋움했다.  
 핫메일, 프론티어 등 외국에서 제공하는 무료  
 E메일들도 많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무료 E메  
 일을 우선 소개한다. (5면으로 계속)

**“대상자 선별 않고 사면”**

**정대스님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9일 총무원장 회의실에서 사면 실시를 위한 중헌 개정안의 중 회 제출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을 것이라. 두번 다시 사면하지는 말아 나오지 않도록 모두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대스님의 발언 요 지.  
 “사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마하려고 중헌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달라. 의례적으로 내는 개정안이 아니다. 중대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이해해달라. 총회에서 사면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중회의원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중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면안만 다루는 중회를 초과일 전에 열도록 의장단에 요청할 것이다. 두 번, 세 번 요청할 것이다. 총회에서 사면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집행부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사면을 하지 않으면 중헌의 중흥불사고 뭐고 될 일이 없다. 총무원 청사를 새로 지으려 해도 화합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  
 배석한 호법부장 종지스님은 “사면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모두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리 산 지키기’ 불자들 앞장**

**지리산 식수댐 백지화 운동 등 전개**  
**경주 남산 문화재 보존-홍보도 적극**

스님과 불자들이 '우리 산 지키기'에 나섰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세수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산림지역을 개발하는 등 반환경적인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스님과 신행단체장들은 각종 법회 또는 신행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타종교·단체와 연대를 주도하며 '우리 산 살리기 운동'과 생태보존, 불교유적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월15일 창립된 '계룡산 보전 시민모임'(공동의장 장곡·갑사주지)은 다양한 울레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산양을 방사, 자생식물 수 도 복하는 한편 계룡산의 야생동물들에게 먹이주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창립된 '지리산 살리기 시민연대'(공동대표 도영·실상사주지)는 지리산의 환경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지리산 식수댐 백지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도법스님은 울레 안에 대해 5천여평 규모의 친환경농업교육장을 만들어 우리



**가신 님 뜻 이어** 2월 1일 입적한 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보유자 송암스님의 49재가 20일 서울 봉원동 봉원사에서 봉행된다. 49재를 불교전통의식인 영산재로 봉행키로 한 스님의 후학들이 연수에 열중하고 있다. 이날 영산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사진=고영배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혐의 후 신중 처리”**

**김대통령, 베를린서**  
 유럽 4개국을 방문중인 김대통령은 달라이라마의 한국 방문에 대해 “서울에 학생회로부터 비자발급 요청이 있으면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10일(우리 시간) 베를린 자유대학 초청연설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달라이라마 방한을 허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중국은 달라이라마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직 서울에 학생들로부터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요청받은 바 없었다”며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는 답변은 일을 처리하는데 적절치 못해 직답은 피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관람범위·징수방법 '이견'**

**문화재관람료 토론회**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이대로 좋은가?’ 주제의 토론회가 참여연대 작은관리찾기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할과 스님들의 문화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공헌 △문화관광부와 환경부 등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문화재 관람 행위의 범위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관련기사 3면>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타당성’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로 발제한 이상훈변호사(참여연대 작은관리찾기 집행위원장)는 합동징수의 법적 근거 미비, 관람료의 과다 징수, 관람료 지출 내역의 불투명 등의 이유를 들어 분리징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장 조계스님은 참여연대 시민관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상훈 변호사가 발제문을 통해 주장한 대목을 조목조목 짚어 반박했다.  
 유 과정은 “공원입장객들이 사할경내의 문화재를 볼 의도가 없더라도 이를 둘러싼 자연환경, 문화재보호환경에 대해서도 볼 의도가 없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들에게 관람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관람료징수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공원 내의 대표적인 사할을 선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지사 모집합니다**

불법행위의 주역! 현대불교신문이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불교언론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현대불교는 생활 불교의 지혜와 고급 정보를 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는 전국 광역시와 도 단위로 지사·지국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조직망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의 독자 확보와 광고영업의 사업 활용권을 갖게 되며, 불법의 포고사로 좋은 신문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각 지역의 세계적인 유적·문화재와 종교유산을 위해 시·도 단위로 전국 지사를 개설하고, 늘 발전하는 자세로 현대불교와 함께 일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1. 대상지역
  - 인천·경기, 대전·충청, 대구·경북, 전남·전북, 울산·경남, 강원도
2. 지사의 사업활동 내용
  - 해당지역 내 독자 구독확장 및 광고수주
  - 본사 주도의 수익 사업활동 수행
  - 지역 내 취재활동 지원 및 기사 확보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 구비서류: 자기소개서(사건부화), 자기소개서, 사업활동계획서,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기한: 2000년 3월 17일
  - 제출방법: 우편(17일 도착한 유요) 또는 직접 방문 접수
4. 제출처: 서울 종로구 경자동 110-3 현대불교신문사 고교부  
 문의전화: 02)737-0090, 02)737-8881, 팩스: 02)737-0097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디피아: www.buddhania.com

**서울시니어스강서타워**  
 SEOL SENIORS KANGSEO TOWER

관음의 가피와 기도 성취를 기원합니다.

## 어르신들의 노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로 살아오신 생,  
 이제는 어르신만을 위해 준비된 공간에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누리십시오.  
 실버타운의 모범적 사례로 인정받아,  
 입주율 100%를 기록한 서울시니어스타워에 이어  
 서울시니어스강서타워가

어르신들의 노후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따뜻하고 즐겁게 모십니다

화려하지는 않으나 깔끔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성실합니다!!

**서울시니어스강서타워 연계사업**

서울시니어스타워, 송도병원, 인재정은병원(휴양병원), 호수골드코스트휴양지, 서울시니어스강서타워

**빈틈없는 의료지원**

- 24시간 간호사 상주 대기, 건강·영양상담, 운동처방
- 강서송도병원과 함께 지어져 24시간 주치의를 내걸에 (진료과목: 내과, 외과, 치과, 물리치료실, 이비인후과 안과, 정형외과, 피부비뇨기과, 운동처방센터 등)

**책임있는 안전관리**

- 중앙관제실에 연결된 긴급, 위급 호출시스템
-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24시간 건강이벤트감시시스템

**다양한 생활프로그램과 해외여행**

- 매일 25가지 이상의 취미, 여가 프로그램 운영
- 강원도 인제 및 호수골드코스트 회원전용 휴양단지

**호텔식 전용 부대시설**

- 수영장, 사우나, 헬스클럽, 도서실, 이·미용실, 의무실, 서예실, 공예실, 천체관측전망대, 약국, 골프연습장, 피아노실, 게이트볼장, 은행, 안경점 등

**건물개요**

- 지하 4층, 지상 15층
- 34평형/60세대 46평형/72세대

**입주조건**

- 강서구 등촌동 KBS88체육과과 발산역 사이
- 지하철 5호선 발산역 300m, 김포공항 5분거리
- 우산산을 바라보는 정남향

**문의** (02) 2232-9003  
 http://www.sst.co.kr